

귀를 기울이면 세상이  
세상이 낸 소리  
우리들의 행복이

세상의 모든  
이름표

정영아 글·그림

## 정영아

작사가.  
2013년도에 데뷔해 지금까지 약 120여 곡의 노래에 가사를 지었습니다.  
이 순간 세상의 모든 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.  
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혼자가 아닌 거죠.  
삶은 다만 어딘가에 더 가까운가에 대한 음악이 아닐까 하는  
작은 문득에서 시작된 그림책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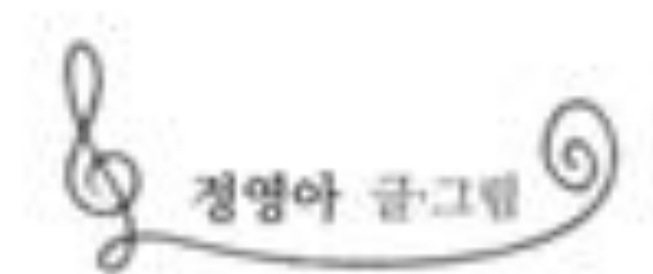
## 세상의 모든 음표

글·그림 정영아  
발행일 2022.12.01.  
인스타그램 @beinginsongs

© 정영아 2022

이 책의 그림과 글을 일부 사용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  
관악문화재단 글빛정보도서관의 <1관 1단>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.

\*이 책에는 나눔손글씨 느릿느릿체와 나눔명조체가 사용되었습니다.





세상의

노래를

모든 것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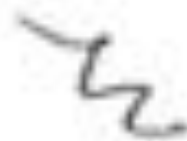
하는

중

음표라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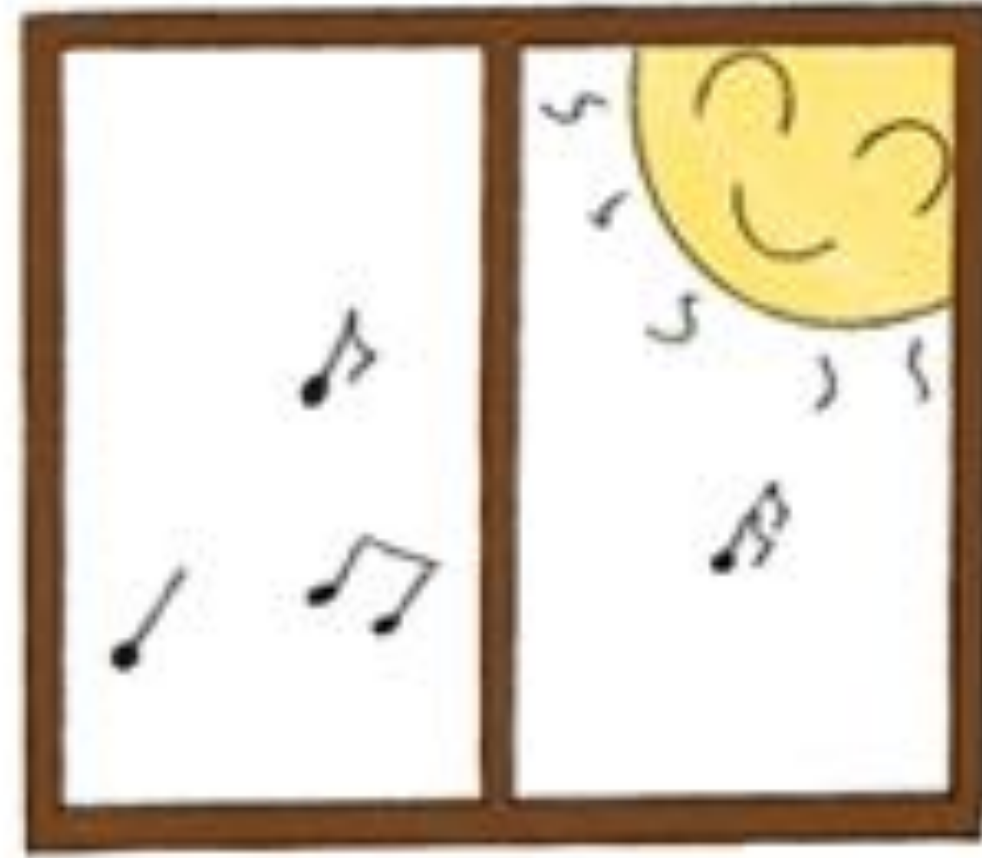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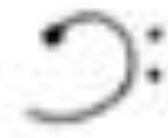
아름답





아침엔  
밤새 날아온 햇살이  
속눈썹을 모신지 않아

한 줄 한 줄  
다 읽었어  
이상 노래를 불러요



Hand-drawn musical notes and symbols.





세수를 하려고 물을 틀어

세면대의 물을

Sea~

바다를 기억하는 물이

안녕

인사를 해요.



우리 시간 세상에 만났어요?



반가운 마음에  
두 손을 물에 담아

파도소리

정말정말  
웅다웅다



527-127





신발은 신는 걸음에  
 눈과 눈과 눈과  
 발걸음마다 다리와 발의



하이파이브

한 쌍

파워링

하이파이브

한 쌍

파워링

신발신발  
 두개두개

우리들의 응원가



Figure 1

한가롭던 하늘에  
백구름이 나타나고  
갑자기 내리는 소리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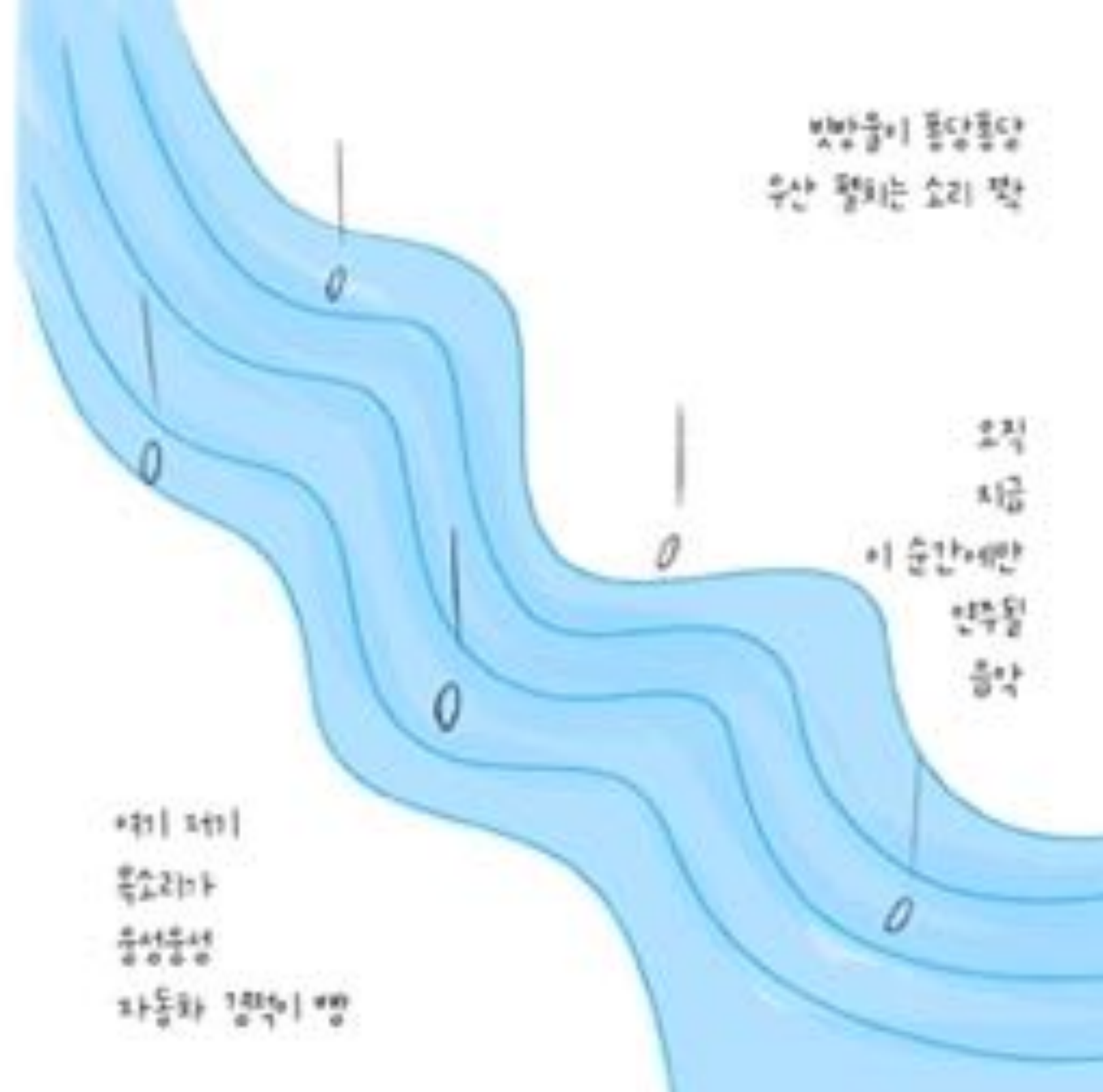


또한  
세상을 조물하여  
오케스트라의  
시락을 알려줌.

여기 저기  
목소리가  
웅성웅성  
자동차 경음이 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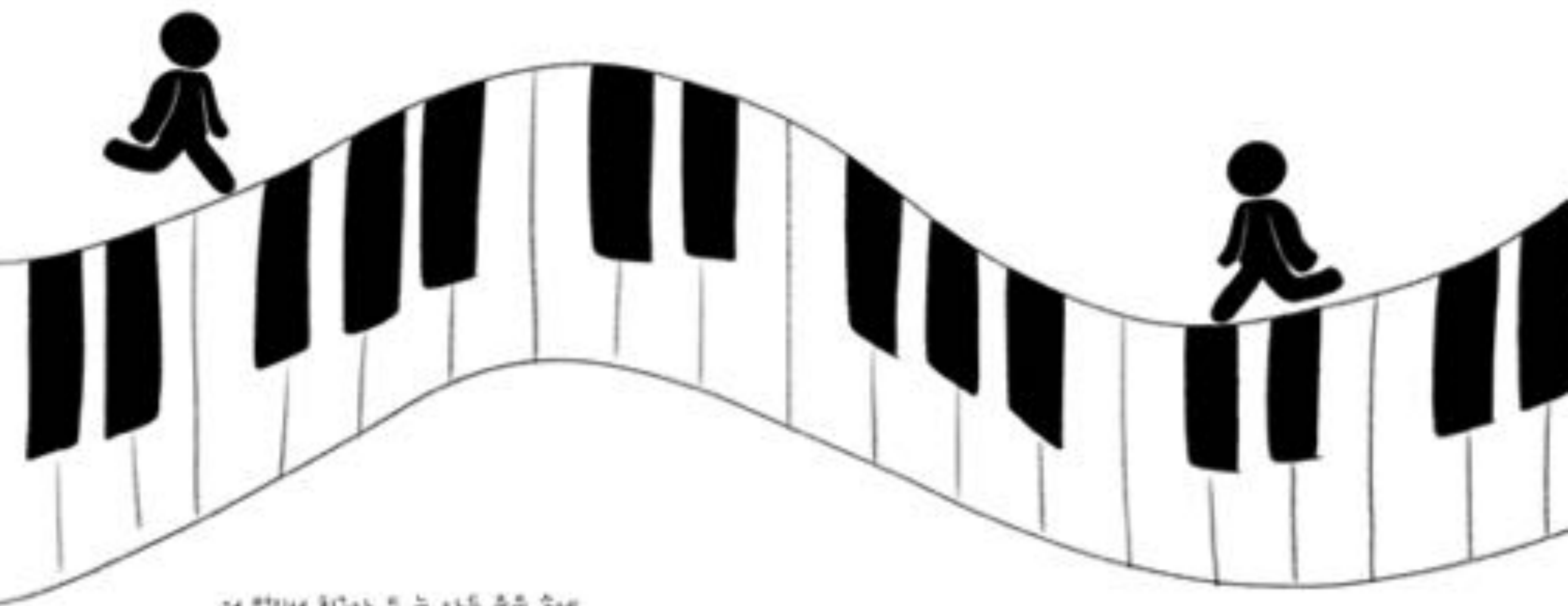
빗방울이 퐁당퐁당  
우산 펼쳐는 소리 짹

오직  
지금  
이 순간에만  
연주될  
음악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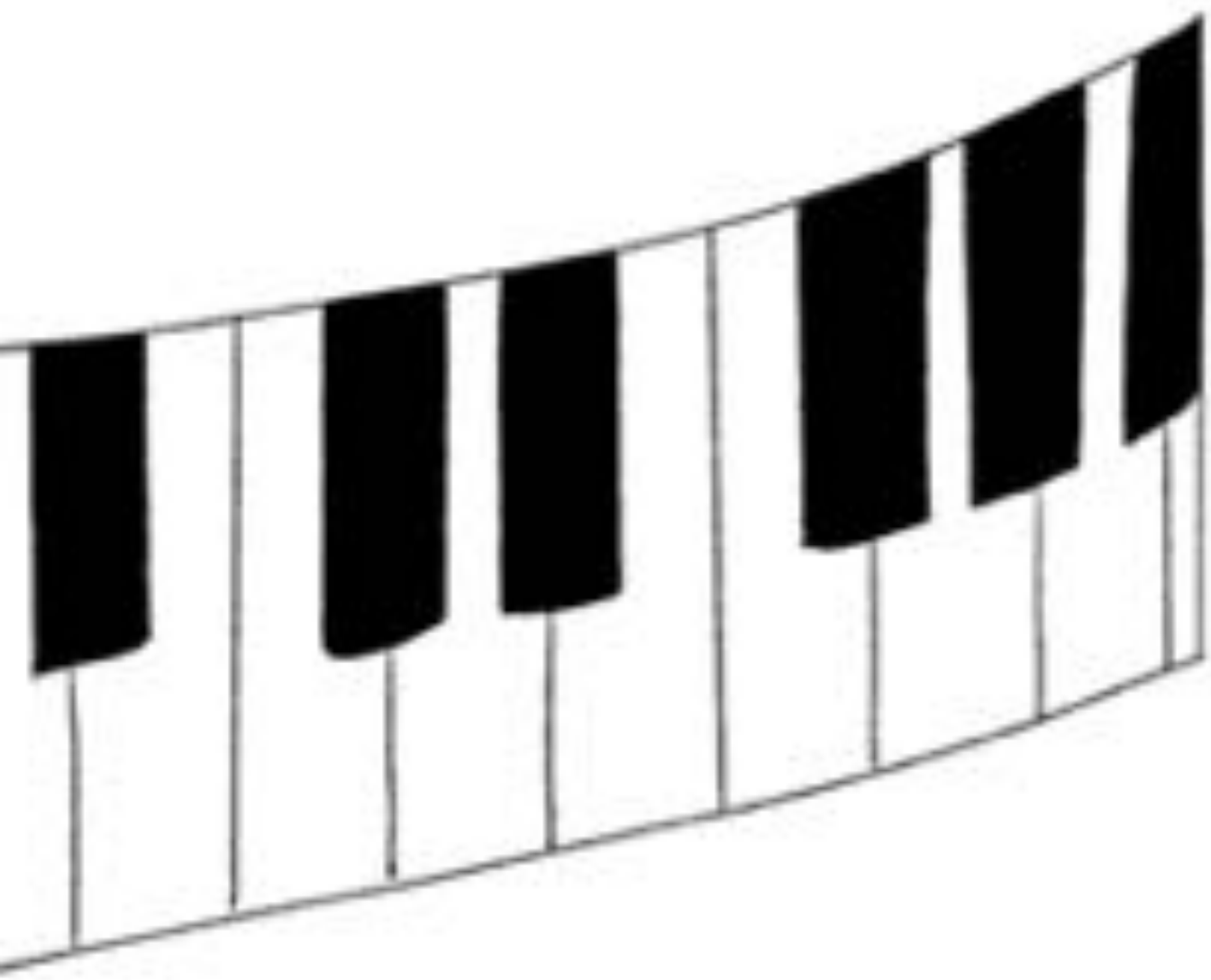
527-127



저 멀리서 친구가 두 눈 가득 웃음 속에  
나를 담으며 내 이름을 불러요.

그 순간 온 세상은 그 멜로디를 담기 위한 반주를 시작해요.





527-127



아침 몸을 웅크려 무릎을 꿇고  
두 팔로 나를 안는 동안은  
음악을 모르고 있는 중이에요.

아직은 얼마나 바쁠지 얼마나 느릴지  
어떤 음을 내게 들지 몰라요.

$$L + \frac{P}{2} \approx \frac{L}{2} + \frac{P}{2} \approx \frac{L}{2} + \frac{P}{2} \approx \frac{L}{2} + \frac{P}{2}$$
$$c_1 + \frac{P}{\sigma} = c_2 - \frac{P}{\sigma} = c_3 + \frac{P}{\sigma} = c_4 - \frac{P}{\sigma}$$

밤이 되면  
달빛이 어머미를지 내려와  
파장파장 툭툭툭

모퉁도 수고 많았다고  
잠들기 전까지  
자랑가를 불러 주지요.





들리나요?



모두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.

나를 부르는 이름이에요.



귀를 기울이면,

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.



들리나요?

들려주세요.

들려주세요.



